



제목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종교 변화에 관한 연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구약학회
발행일	2002. 10. 15.
저자	김지은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57-72
ISBN 또는 ISSN	1229-0521

내용 요약

이 논문은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의 사회-종교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이를 위해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서부터 기원전 538년 바벨론 포로의 귀환까지의 유다 사회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유다 왕국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이주와 귀환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각성과 새로운 사회 변화를 요청했다고 본다.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 다시 귀환하는 사건은 페르시아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귀환 후 땅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야웨 신앙과 토지 소유권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땅을 얻는 것은 야웨의 계약을 기억하고 계명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으로 땅을 잃거나 땅이 생산을 멈추는 것은 야웨의 계약을 위배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면서 팔레스틴 공동체와 귀환 공동체 사이에 땅의 소유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성전 재건의 완성으로 인해서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성전 재건의 완성으로 인해 야웨의 통치가 시작되고 유다 사회가 통합되어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면서 이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유다 사회는 다시는 자신의 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땅의 거주민이 지켜야 할 조건을 만든다. 하나님 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며 이방여인과 결혼을 금하고 야웨 신앙을 유지하며 회년과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사회적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